

“예술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삶 향한 질문 던질 것”

오는 9월5일 개막을 앞둔 제16회 광주비엔날레가 최근 참여 작가 선정과 주요 출품작 구성을 마무리하며 전시 윤곽을 구체화하고 있다. 지난 3월 주제발표에서 '변화(Change)'와 '실천(Practice)'을 핵심 개념으로 제시한 호 추 니엔(Ho Tzu Nyen) 예술감독은 변화가 일상 속에서도 이어지며, 예술적 실천이 관계를 만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광주매일신문은 개막을 약 3개월 앞둔 시점에서 호 추 니엔 예술감독과 서면 인터뷰를 갖고 이번 광주비엔날레가 내세운 변화와 실천의 의미, 그리고 이번 전시가 지향하는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그는 이번 비엔날레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점(point)'과 '벡터(vector)'를 언급했다. 일반적인 비엔날레가 개별 작품들이 흩어져 있는 '점'의 구조에 가깝다면, 이번 전시는 하나의 작업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이 어지고 변화해 왔는지 보여주는 '벡터'의 전시에 가깝다는 것이다. 여기서 벡터는 '선'이라고 기보다는 반복과 지속, 그리고 변화의 방향성을 담은 개념이다.

호 추 니엔 감독은 "작품은 공간 안에 흩어져 있는 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시는 본래 서로 다른 것들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내는 작업"이라며 "관람객이 작품의 의미뿐 아니라 하나의 실천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가능성을 만들어내는지 함께 살펴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을 미래에서 새롭게 등장한 무언가가 아니라 인간의 지각과 기억, 주의력, 사회적 관계를 재구성하는 실천의 집합으로 바라본다.

또한 사운드에 대해서도 단순한 청각적 경험이나 사람과 사람,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관계적 매체로 이해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운드아트와 미디어아트, 회화, 조각, 퍼포먼스 같은 장르 구분 자체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저에게 중요한 건 이것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는 예술이 어떤 매체인가보다 그것이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예술적 실천이 감각하고, 견디고, 관계 맺고, 상상하며 변화할 수 있는 힘을 어떻게 길러내는데 주목한다는 것이다.

주제발표에서 언급된 '하드코어(hardcore)'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호 추 니엔 감독은 '하드코어'를 특정 음악 장르나 강렬한 미학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어떤 일을 반복하고 지속하는 태도, 편안함과 익숙함을 넘어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는 헌신의 자세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이번 비엔날레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점(point)'과 '벡터(vector)'를 언급했다. 일반적인 비엔날레가 개별 작품들이 흩어져 있는 '점'의 구조에 가깝다면, 이번 전시는 하나의 작업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이 어지고 변화해 왔는지 보여주는 '벡터'의 전시에 가깝다는 것이다. 여기서 벡터는 '선'이라고 기보다는 반복과 지속, 그리고 변화의 방향성을 담은 개념이다.

호 추 니엔 감독은 "작품은 공간 안에 흩어져 있는 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시는 본래 서로 다른 것들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내는 작업"이라며 "관람객이 작품의 의미뿐 아니라 하나의 실천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가능성을 만들어내는지 함께 살펴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을 미래에서 새롭게 등장한 무언가가 아니라 인간의 지각과 기억, 주의력, 사회적 관계를 재구성하는 실천의 집합으로 바라본다. 또한 사운드에 대해서도 단순한 청각적 경험이나 사람과 사람,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관계적 매체로 이해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운드아트와 미디어아트, 회화, 조각, 퍼포먼스 같은 장르 구분 자체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저에게 중요한 건 이것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는 예술이 어떤 매체인가보다 그것이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예술적 실천이 감각하고, 견디고, 관계 맺고, 상상하며 변화할 수 있는 힘을 어떻게 길러내는데 주목한다는 것이다. 주제발표에서 언급된 '하드코어(hardcore)'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호 추 니엔 감독은 '하드코어'를 특정 음악 장르나 강렬한 미학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어떤 일을 반복하고 지속하는 태도, 편안함과 익숙함을 넘어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는 헌신의 자세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이번 비엔날레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점(point)'과 '벡터(vector)'를 언급했다. 일반적인 비엔날레가 개별 작품들이 흩어져 있는 '점'의 구조에 가깝다면, 이번 전시는 하나의 작업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이 어지고 변화해 왔는지 보여주는 '벡터'의 전시에 가깝다는 것이다. 여기서 벡터는 '선'이라고 기보다는 반복과 지속, 그리고 변화의 방향성을 담은 개념이다.

호 추 니엔 감독은 "작품은 공간 안에 흩어져 있는 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시는 본래 서로 다른 것들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내는 작업"이라며 "관람객이 작품의 의미뿐 아니라 하나의 실천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가능성을 만들어내는지 함께 살펴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을 미래에서 새롭게 등장한 무언가가 아니라 인간의 지각과 기억, 주의력, 사회적 관계를 재구성하는 실천의 집합으로 바라본다. 또한 사운드에 대해서도 단순한 청각적 경험이나 사람과 사람,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관계적 매체로 이해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운드아트와 미디어아트, 회화, 조각, 퍼포먼스 같은 장르 구분 자체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저에게 중요한 건 이것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는 예술이 어떤 매체인가보다 그것이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예술적 실천이 감각하고, 견디고, 관계 맺고, 상상하며 변화할 수 있는 힘을 어떻게 길러내는데 주목한다는 것이다. 주제발표에서 언급된 '하드코어(hardcore)'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호 추 니엔 감독은 '하드코어'를 특정 음악 장르나 강렬한 미학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어떤 일을 반복하고 지속하는 태도, 편안함과 익숙함을 넘어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는 헌신의 자세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호 추 니엔 제16회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인터뷰

‘변화’와 ‘실천’ 중심 전시 구성

개별 작품보다 작가 궤적 조명

오월어머니집·쇠걸립 프로젝트 등

광주 기억 잇는 공동체 연대에 주목

◇ 호 추 니엔(Ho Tzu Nyen)은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미디어 아티스트이자 영화감독, 기획자다. 아시아의 근대성과 정체성, 역사와 신화, 기억과 서사를 탐구하는 작업으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아왔다.

광주와도 인연이 깊다. 제12회 광주비엔날레 '상상된 경계들'(2018), 제13회 광주비엔날레 '떠오르는 마음, 맞이하는 영혼'(2021)에 참여했으며, 2026년 제16회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으로 선임됐다.

싱가포르미술관(2023), 도쿄현대미술관(2024), 아트선재센터(2024), 무당 룩셈부르크(2025)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베니스비엔날레(2014), 아이치트리엔날레(2019), 사르자비엔날레(2019) 등 주요 국제 전시에 참여했다. 또한 그의 영화는 베니스국제영화제, 칸영화제, 베를린국제영화제 등 세계 주요 영화제에서 상영됐다.

기획자로서는 제7회 아시아미술비엔날레 '산과 바다를 넘어선 이방인들'(2019)을 공동 기획하며 아시아 지역의 역사와 경계, 변화의 문제를 조명했 바 있다.

“변화란 목적지가 아니라 실천입니다. 모든 신체와 풍경, 모든 사회와 세계는 이미 변화의 과정에 있습니다.”

오는 9월 개막하는 제16회 광주비엔날레는 작품 자체보다 예술적 실천의 과정에 주목한다. 호 추 니엔 예술감독은 이번 전시를 개별 작품의 집합이 아닌 '실천의 궤적'으로 설명하며, 예술적 실천이 만들어내는 변화의 과정을 살펴보는 전시를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16회 광주비엔날레의 주제는 '너는 네 삶을 바꿔야 한다(You Must Change Your Life)'이다. 독일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 마지막 구절에서 가져온 문장으로, 호 추 니엔 감독은 이를 변화에 대한 명령이 아닌 관람객 스스로 질문과 마주하도록 여는 문장으로 해석한다.

그는 "문화예술이 단 하나의 답만 남긴다면 선전이 될 위험이 있다"며 "전시는 관람객 각자가 자신만의 서사를 만들고 작품들 사이에서 스스로의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틀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어 "관람객들이 변화 자체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돌아가길 바란다"며 "변화는 이미 우리 주변과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는 의식하든 그렇지 않든 그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광주비엔날레를 관통하는 주제는 '변화(Change)'와 '실천(Practice)'이다. 그는 사

람들이 흔히 혁명이나 위기, 역사적 전환점 같은 극적인 사건을 통해 변화를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일상 속에서도 크고 작은 변화가 끊임 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조금씩 변하는 것처럼 많은 변화는 쉽게 알아차리지 못한 채 진행된다. 이번 비엔날레는 일상의 작은 리듬에서부터 역사적 사건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속도와 규모의 변화를 함께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가 계속해서 언급한 것은 '실천'이다. 이번 전시에서 실천은 반복과 지속, 헌신과 시간의 축적을 통해 변화가 유지되는 방식 자체를 의미한다. 그렇기에 올해 광주비엔날레는 개별 작품보다 작가가 오랜 시간 이어온 예술적 실천의 과정에 주목한다.

이러한 관점은 역대 광주비엔날레 가운데 가장 적은 규모인 45명 이하의 작가를 선정한 이유와도 연결된다.

호 추 니엔 감독은 "많은 작가의 작품을 한 점씩 나열하는 대신 한 작가의 여러 작업을 함께 보여주는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작품만이 아니라 예술적 실천 자체와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자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다수의 참여 작가들은 서로 다른 시기에 제작한 작품들을 함께 선보인다. 이를 통해 관람객은 개별 작품 감상에 머무르지 않고 작가가 오랜 시간 이어온 질문과 사유, 변화의 과정을 보다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살펴볼 예정이다.

광주비엔날레 고유 프로젝트인 GB커미션도 마련된다. GB커미션은 광주정신의 시각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역사화와 담론화를 시도하는 신규 프로그램으로, 예술이 개인과 공동체에 가져오는 변화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동시대 미술과 지역사회 간 연결을 확장하는 프로젝트로 운영될 예정이다.

국내외 문화예술기관이 참여하는 파빌리온 프로젝트도 확대된다. 광주 곳곳의 미술관과 문화공간에서 해외 기관과 협업 전시가 진행되며, 국가와 지역을 넘나드는 교류의 장을 형성한다. 파빌리온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 이강미술관 등 지역 문화공간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비엔날레에서는 새로운 시각 언어인 EIP(Event Image Poem)도 선보인다. EIP는 작품 이미지와 5행의 짧은 시를 결합한 형식으로, 작품을 설명하거나 해석하기보다 관람객



(사진 시계방향으로) 코스기 다이스케의 영상작업 '어긋난 무게(A False Weight)', 박찬경 작가 영상 작업 '만신: 만개의 영혼(MANSHIN: Ten Thousand Spirits)', 엘빈 모티 '어느 맑은 날' 필름 스틸, 콜딘·세네비 설치 작업 '레진 연못'.



이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미지와 언어 사이의 긴장과 여백을 통해 변화와 가능성이라는 이번 비엔날레의 주제를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장치다.

이를 통해 광주비엔날레는 '변화'와 '실천'이라는 핵심 개념을 전시 구성뿐 아니라 시각 언어 전반으로 확장해 선보일 예정이다. **<최명진 기자>**

광주비엔날레

“너는 네 삶을 바꿔야 한다” 72일간 펼쳐질 변화의 여정

본전시·파빌리온·GB커미션 등 '다채'

오는 9월5일 개막하는 제16회 광주비엔날레가 '너는 네 삶을 바꿔야 한다(You Must Change Your Life)'를 주제로 72일간 광주 일원에서 펼쳐진다.

독일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 '고대 아폴로의 토르소' 마지막 구절에서 제목을 가져온 이번 비엔날레는 예술을 통한 자기 변화의 가능성과 실천을 조명한다.

환경 위기와 전쟁, 불평등, 민주주의의 위기 등 동시대 사회가 직면한 문제 속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예술이 회복과 재구성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는 북구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을 중심으로 광주 시내 일원에서 진행된다.

본전시는 변화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을 반영해 5개 전시장으로 구성된다. 분자적 변화와 개인적 변화, 세계적 변화, 우주론적 변화 등을 주제로 인간과 사회, 기술, 자연의 관계를